

#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 Mid-Life Crisis and It's Related Variabl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김 명 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Myung Cha*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Park Seong Yeon*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 3.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
| II. 이론적 고찰         | 4. 조사 대상 및 분석절차  |
| 1. 중년기 발달          | IV. 결과 및 해석      |
| 2. 중년기 위기감과 적응     | 1. 중년기 위기감의 수준   |
| 3.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된 변인 | 2. 관련 변인의 탐색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3.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   |
| 1. 연구문제            | V. 결론 및 제언       |
| 2. 측정도구 및 변인의 구성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middle age, to compare the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mid-life crisis,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cause the mid-life crisis of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reviewing literatures and emprical research were conducted.

For the emprical research, Mid-life Crisis Scale, Mid-life Identity Scale, Family Relation Scale, Health Scale and Religious Scale were developed.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the men and women living in Seoul, whose age is from 40 to 59, and whose last child is older than 13 years of age. Among 820 respondents 218 men and 442 women were finally selected as datum sourc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 such as the factor analysis,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Men and women experience mid-life crisis some extent. The mid-life crisis score for men is 33.60 and 35.0 for women. This implies women reveal significantly higher crisis than men.

2) As for the related variabl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and income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 the mid-life crisis of men. As for women's mid-life crisis, self-awaring age, education, income, husband's occupation, employment status of wife and occupational status of wif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Expecially employment status of wife seemed to interact with sex, husband's occupation and educational level of wife.

However status of child, family pattern, son's existence are not as important an influence on mid-life crisis.

3) Among the psychological variables, work identity and physical identity have the strong influence on the mid-life crisis of men and women. It implies that mid-life crisis is lower when one has higher work identity and physical identity.

4) Mid-life crisis of men and women is influenc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family relation variables and health variables. It reveals that the better one's family relations and health state, the lower one's mid-life crisis is. However menopause and the years after menopause do not influence on the mid-life crisis of women.

5) Mid-life crisis of women differs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kind of religion and religious activity. That is mid-life crisis of women is lower when she believes in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and participate in more religious activity. Mid-life crisis of men i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eligious variables.

After all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variables that relate to mid-life crisis, psychological variables-especially work identity and physical identity are observed to have the strongest degree of significance.

##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중년기가 인생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엽이전까지만 하여도, 발달 단계로서의 중년기는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외시되어 연구자의 관심은 인생주기의 초기단계에 집중되어 왔다. 즉 1970년대초까지의 중년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년기를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변적 보조적인 주제로서 다른 연구의 부산물로 다루어진 것이 특색이었다(Weller 1983).

최근에 이르러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전 인생 주기의 중요한 단계로서 중년기 특성이 밝혀지고, 또한 평균수명연장, 가족계획으로 인한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수입과 여가증대, 여성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여성해방운동등으로 인한 자아에 대한 관심의 고조등, 제반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중년기가 장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의 중년세대는 50년 전과는 전혀 상이한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前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문제와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중년 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중년기라 볼 수 있는 40~59세 인구가 1960

년에 약 360만명 이던 것이, 1985년에는 약 7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도 1960년에는 14.4%이었으나, 1985년에는 17.9%로 점진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가족계획연구원 1978; 경제기획원 1982~1987). 이러한 중년인구의 증가는 미국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 전후 baby boom세대가 현재의 중년세대를 이루고 있어, 성인의 세기(centry of the adult)에 돌입하고 있다(Weller 1983).

특히 여성에 있어 중년기는 자녀양육 역할이 감소되면서, 자유감의 증가로 잠재된 능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문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중년기 인구의 증가, 가족주기 변화, 사회변화 등으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Sheehy(1974)가 그의 대표작인 Passage에서 성인의 생활주기를 묘사한 이래로, Levinson(1978) Gould(1978)등이 선구적으로 중년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 가족학자, 발달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중년기 발달과 이에 따르는 문제, 중년기 변동등에 관한 집중적 연구가 이루어져,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화가 전 인생주기를 통하여 지속되며, 성인기 사회화는 다른 단계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인기 발달과정에 있어 중년기가 결정적 시기이며, 중년기는 内的, 外的 변화와 관련된 많은 당면문제들이 있다는데는 동의하나, 연구가 지속되면서 여러가지 상반된 견해가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년기를 사춘기와 같은 격동과 혼돈, 위기의 시기로 보는 임상심리학자를 주축으로 한 부정적 견해(Jaques 1965; Livson 1976)와, 일시적 적응을 요하는 전환기로 보는 비교적 긍정적견해(Neugraten 1979; Clausen 1981)가 상반되고 있다. 또한 중년기에 대한 정의, 연령범위, 중년기 위기감의 존재여부,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실증적 자료나 이론이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중년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우리

나라에서 기술의 급진적 진보와 복합적 구조, 그리고 사회변동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중년기 개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변동에 직면한 중년기 개인의 심리적 위기감이 그를 둘러싼 内的, 外的 환경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 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있는 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심한 변동의 시기에 처해있는, 그러나 인생주기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를 밟고 있는 중년기 개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적응을 도와 内的 통합 방안을 모색케 하여, 바람직스러운 중년기 생활을 위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중년기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에 있어,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중년기 연구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 II. 이론적 고찰<sup>1)</sup>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 수준과약

(가설 1-1) 중년기 위기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과의 관련 변인 탐색

(가설 2-1)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자각연령, 막내자녀 위치, 학력,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아들유무, 가족형태, 부인의 직업유무, 부인의 직업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심리적 특성 변인(일, 외모,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부양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주 1: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 상세한 내용은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5-33 참조바람.

것이다.

(가설 2-3)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가족관계 변인(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신체적·생물학적 특성변인(건강, 폐경경험 유무, 폐경경과 했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종교변인(종교참여도, 종교유무, 종교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영

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 분석. 이상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그림 1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측정도구 및 변인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척도는 중년기 위기감 척도, 중년기 자아정체감 척도, 중년기 가족관계 척도, 중년기 건강척도, 종교참여도 척도이며, 이상의 모든 척도는 40세 이상의 남자 33명, 여자 79명을 대상으로 2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문항분석 요인분석의 3단계 분석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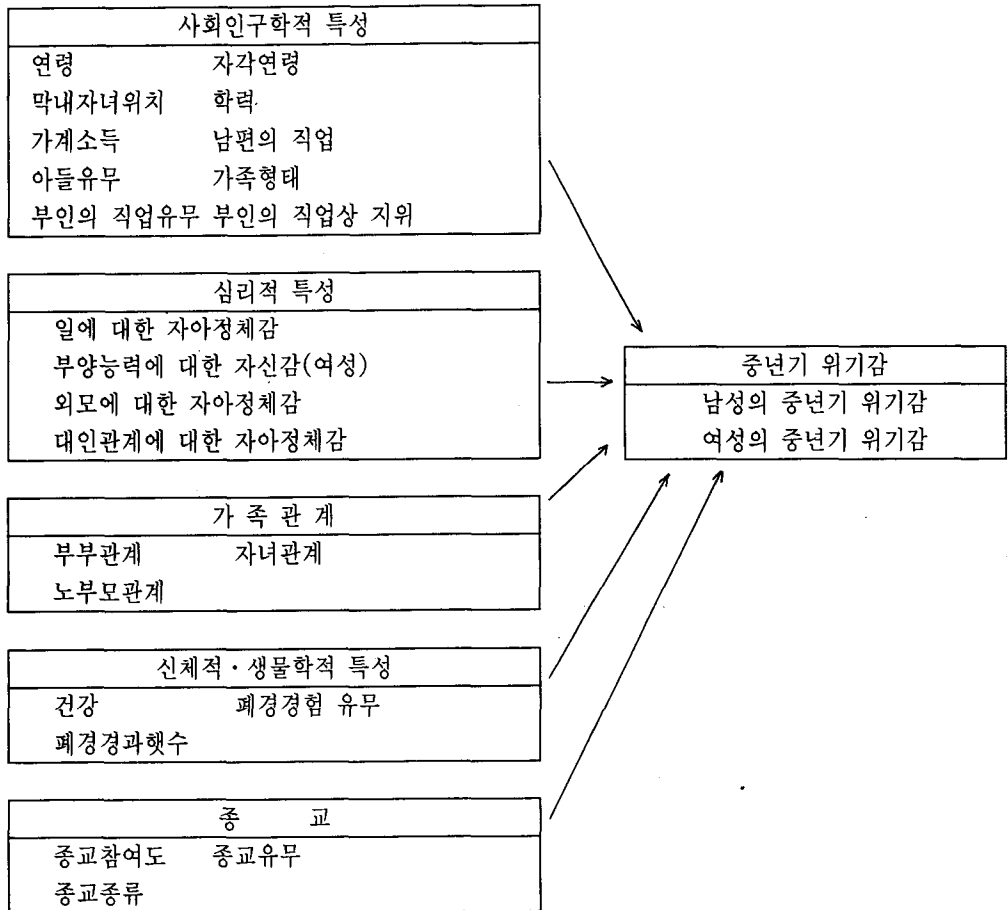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연구 모형.

주 2: 척도의 구체적 작성 절차 및 내용은 김명자(1989), 전제서, pp39-56을 참조하기 바람.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한 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실시하였다<sup>2)</sup>.

### 1) 중년기 위기감 척도

중년기에 개인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후회감, 실망감, 초조감, 허탈감등 종합적 개념, 즉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중년기 위기감을 정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 문항, 즉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18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18개 문항은 중년기에 처한 개인의 느낌, 생활전반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질문하는 Farrell과 Rosenberg(1981)의 Middle Life Crisis Scale과 Linn과 Linn(1984)의 Self Evaluation of Life Function Scale중에서 Depression Scale, 그리고 Radloff(1977)가 개발하여 그 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CES-D) Scale등을 모체로 하였으며, 이 자료는 3단계를 거쳐 분석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11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양극을 지닌 5점척도로, 3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중년기 위기감이 높음을, 그 이하이면 낮음을 나타낸다. 중년기 위기감 총점수는 11점에서 55점까지 분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중년기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을 본질적으로 자기확신감으로 정의한 Chickering(1975)의 견해를 근거로, 중년기 개인이 자신의 직업, 일, 외모, 대인관계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발달시켜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内的 확신감으로 정의한 뒤 Thompson(1980)과 서봉연(1975)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근거로 52문항을 작성한 뒤 3단계 분석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 22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22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제 1 요인을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척도로, 제 2 요인을 외모, 제 3 요인을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남자가 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등을 묻는 3문항을 여성의 부양능력에 대한 자

신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뜻한다.

### 3) 중년기 가족관계, 건강, 종교참여도 척도

가족관계 척도는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Hays와 Stinnett(1971)의 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 Scale과, Snyder(1981)의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모체로, 연구자가 한국문화에 적절하게 번안 제작하여 사용했던(김명자 1986)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예비조사에 사용하여 3단계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8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요인분석결과에 의해 추출된 3요인을 각각 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관계 척도로 사용하였다. 건강척도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Linn과 Linn(1984) Williams(1985)의 Health Scale을 모체로 10문항을 작성하였다.

종교참여도 척도는 신앙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태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 公的인 활동, 개인적, 私的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Koenig(1988)의 종교성 척도를 근거로 9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각각 3단계 분석 과정을 밟은 결과 건강척도의 10문항, 종교 참여도 척도 9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하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종교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 기타 변인

발달적 변인으로 연령, 자각연령, 막내자녀위치를,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학력,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을, 가족환경 변인으로는 아들유무, 가족형태, 부인의 직업유무, 부인의 직업상 지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폐경경험 유무와 폐경 경과했수는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변인에 포함시켰으며, 종교유무와 종교종류는 종교변인에 포함시켰다.

### 3.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변인별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다음에 타당도는 측정척도가 그 개념이 정의된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변인별 척도		문항수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종속 변인	중년기 위기감	11	.80	.77
독립 변인	중년기 자아정체감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8	.78	.86
	부양능력에 대한 자신감	3	.75	.82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8	.80	.58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6	.82	.59
가 족 관 계	부부관계	8	.82	.89
	부모-자녀관계	7	.80	.87
	노부모관계	3	.82	.78
건 강 종 교	건강	10	.91	.87
	종교	9	.88	.95

대로의 내용을 측정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및 예측 타당도의 일종인 준거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내용타당도는 안면타당도의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 분야에서 아동학 가족학을 강의하는 교수 5인으로 부터 각각의 가치도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다음에 구인 타당도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구인(theoretical construct)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는 주성분 분석을 통한 페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요인분석표 생략).

마지막으로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가족치료나 상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위기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위기감보다는 높으리라는 판단하에,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한국임상심리 치료센터와 성북구 하월곡동에 소재한 생명의 전화를 통하여, 2회이상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중년기 남녀 30명을 선정하여, 중년기 위기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구성하였다.

비교 집단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상자중

남녀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에게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작용하여, 각 집단의 평균점수와 t검증을 통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담시설 이용자의 중년기 위기감 점수는 3.42이고 일반집단의 중년기 위기감 점수는 3.16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11문항의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타당도는 상당한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생략).

자아정체감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는,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이 가정밖에서의 활동과 상관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Thompson 1980) 비취업부인과 취업부인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부인을 선정하여, 두 집단의 자아정체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직 취업부인의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부양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하게( $p < .001$ )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모,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는 검증할 수 없었으며, 이것이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 남아있는 문제라 하겠다(표 생략).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중 가족관계 척도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나, 유의미한 점수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추측되는 상이한 집단의 선정이 어려웠으므로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므로 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건강척도와 종교참여도 척도는 객관적 사실을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되었다.

#### 4. 조사대상 및 분석절차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남녀로, 적어도 막내자녀가 중학교이상에 재학중이며, 자녀 중 1인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을 일단 서울시 거주자로 국한한 것은, 도시와 농촌에 있어 중년기에 처한 개인의 가족 内外에서의 생활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조사대상 선정시의도적으로 제외하였는데, 그것은 중년기가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는 시기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생활경험과 감정상태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조사실시에 앞서 1988년 3월과 4월에 해당 중년기 남자 33명, 여자 79명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예비조사를 2주일 간격으로 면접방법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2차례의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 조사용 척도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연령 가족생활주기등 발달적변인을 고려하여 서울 강남과 강북에 소재한 각각 2개 고등학교와 서울시내 8개 대학교 학부모 1000명에게 1988년 4월20일 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여 820부 정도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660부를 본 연구자료로 삼았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218부, 여자가 442부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자료 분석은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문항분석→요인분석에 의한 척도 구성→척도별 신뢰도 검증→척도별 타당도

검증→문항별 빈도, 백분율, 평균, 산출→변량분석→피어슨 적률상관 관계→단계적 회귀분석.

## IV. 결과 및 해석

### 1. 중년기 위기감의 수준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의 일반적 경향이 표 3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년기 위기감 점수의 평균치가 남자는 33.60, 여자는 35.0으로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p<.001$  수준에서 의미있게 높은 위기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기 위기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가설 1-1)은 긍정되었다.

문항별 비교에 있어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전반적으로 위기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변 친구들이 중년기 공허감 허탈감을 경험함, 현재 하고 있는 일로부터 도전감, 흥미 느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의 내용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 $p<.001$ )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이 높았고, 그 밖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짐, 우울함, 허전함 느낌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로 ( $p<.05$ ) 여성의 위기감이 높았다.

이와 같이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이 높은 것은, 중년기 부인의 위기감과 관련하여 가족문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녀 양육 역할이 감소되면서 증가된 자유감과 함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것이 중년기 여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 2. 관련변인의 탐색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규명을 위하여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중년기 위기감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는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반 변인들과의 관계를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4인데, 이에 의하면, 남성의 중년기 위기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18	33.0	가계소득	60만원 이하	162	24.5
	여자	442	67.0		61~80만원	127	19.2
연령	40~44세	99	15.0		81~100만원	192	29.1
	45~49세	275	41.6		101~150만원	82	12.4
	50~54세	219	33.2		151만원이상	97	14.7
	55~59세	67	10.2	남편의 직업	무직	7	1.1
	남자평균연령	50.9세			은퇴, 기타	60	9.1
여자평균연령	48.0세		단순노무직		7	1.1	
자각연령 <sup>a)</sup>	39세이하	107	16.2	직업	숙련노동	23	3.5
	40~49세	392	59.4		자영상공	134	20.3
	50~59세	161	24.4		사무직	145	22.0
남자평균자각연령	47.6세		전문직		250	37.9	
여자평균자각연령	44.9세		자본가		34	5.2	
막내자녀위치	중학교 재학	188	28.5	아들 유무	유	574	87.0
	고등학교 재학	243	36.8		무	86	13.0
	대학교 재학	185	28.0	딸 유무	유	616	93.3
	기타	44	6.7		무	44	6.7
만자녀위치	고등학교 재학	50	7.6		평균아들수	1.27명	
	대학교 재학	354	53.6		평균딸수	1.80명	
	대졸, 미혼	138	20.9	가족형태	핵가족	547	82.9
	결혼	100	15.2		대가족	113	17.1
	기타	18	2.8	부인의 직업 유무	유	194	29.4
			무		466	70.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97	14.7	부인의 직업상 <sup>b)</sup> 지위	비취업	466	70.6
	고등학교 졸업	245	37.1		비전문직	115	17.4
	2년제 대학 졸업	56	8.5	전문직	79	12.0	
	대학교 졸업이상	262	39.7				
폐경경험	월경 계속중	285	64.8	종교 유무	유	474	71.8
	수술, 질병으로 중단	36	8.2		무	186	28.2
	자연히 중단	119	27.0	종류	기독교	199	42.0
폐경과햇수	2년 이하	62	40.8		천주교	110	23.2
	3~5년	53	34.9		불교	160	33.7
	6년 이상	37	24.3		기타	5	1.1

<sup>a)</sup> 자각연령 : Barak(1987)의 연구에 근거하여, 자신이 몇세 정도라고 생각하는가(Feel Age), 자신이 몇세 정도로 보이리라 생각되는가(Look Age), 사진이 몇세 정도의 사람처럼 행동하는가(Do Age)를 각각 질문하여 그 평균을 산출하였다. (예 : Feel Age 40대, Look Age 30대, Do Age 50대로 응답한 경우에)

자각연령은  $\frac{45+35+55}{3} = 45$ 세로 산출함)

<sup>b)</sup> 부인의 직업상 지위 : 취업부인의 직업을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비취업 부인을 포함시켜 세집단으로 구분함. 전문직에는 교직원을 주축으로 한 집단과 자본가가 포함되고, 비전문직에는 단순노무직, 자영상공, 사무직이 포함됨.



표 3.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 차이

중년기 위기감 내용	남자(n=218)		여자(n=218)		전체(N=660)		남자 : 여자 t 검증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주변 친구들이 중년기 공허감, 허탈감을 경험함	3.17	1.00	3.57	0.92	3.44	0.96	-5.03***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짐	2.78	1.14	2.97	1.15	2.91	1.15	-2.06*
현재 하고 있는 일로부터 도전감, 흥미 느낌	2.82	1.02	3.10	1.01	3.01	1.02	-3.49***
우울함, 허전감을 느낄때가 많음	3.12	1.09	3.34	1.05	3.27	1.07	-2.46*
자녀들이 다시 어렸으면 하고 바랄때가 있음	2.59	1.25	2.79	1.32	2.72	1.30	-1.84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도 있을텐데 하는 느낌이 듦	3.30	1.01	3.24	1.12	3.26	1.08	-0.70
같은 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이라는 느낌	2.98	1.02	3.14	1.09	3.09	1.07	-1.85
지난 생활에 대하여 후회스러운 일이 많음	3.41	1.09	3.46	1.09	3.45	1.09	-0.54
근심, 걱정으로 깊은 잠 못 이룰때가 있음	2.89	1.11	2.99	1.18	2.96	1.16	-1.03
현재 위치에 대하여 행복하게 생각함	2.80	0.83	2.83	0.91	2.82	0.89	-0.47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때가 있음	2.95	1.01	3.45	0.91	3.28	0.97	-6.32***
평 균	2.98	0.57	3.17	0.59	3.11	0.59	-3.92***
위기감 총점(55점 만점)	33.60	5.45	35.00	5.53	34.50	5.44	-3.04**

\* p&lt;.05    \*\*p&lt;.01    \*\*\*p&lt;.001

같은 연령(p<.01), 학력(p<.05), 가계소득(p<.001)에 의해 의미 있는 영향을 받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자각연령, 학력(p<.01),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유무, 부인의 직업상 지위(p<.001)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추후검증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45세 이상 집단의 위기감이 40~44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년기 전환기에 위기감이 가장 높다고 한 Levinson (1978)의 견해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생활연령 자체보다는 자각연령이 낮을 수록, 즉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중년기 위기감이 낮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막내자녀 위치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하여 활동이론에 의해 지지 받아오던 중년기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들과 보다 밀착된 관계에 있으므로, 자녀의 성장 독립에 따른 유대감 약화는, 여성에게 더욱 문제가 되며 상실감도 크다(Colarusso & Nemiroff 1983)는 견해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중년기 위기감이 자녀의 독립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역할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Rubin(1979)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서구의 가족과 문화배경, 가치규범이 다른 한국 가족의 경우, 결혼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의 계속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막내자녀의 대학입학이 그대로 자녀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막내자녀의 독립에 따라 중년기 증상이 있다거나, 또한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서구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가족에서의 막내자녀 위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여부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막내자녀까지 모두 결혼, 분가시킨 중년기 부부와 여전히 동거중인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남녀 모두 학력과 소득이 낮을 수록 위기감이 높게 나타나 이것은 Oppenheimer(1974)가 언급한 바와 같이,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life-cycle squeeze)이므로, 소득이 심리적 안정감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드러내 준다.

또한 제한된 자원이 중년기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

사회인구학적 변 인	집 단	남자(n=218)				여자(n=442)			
		빈 도	평균점수	F 검증	Duncan's	빈 도	평균점수	F 검증	Duncan's
연 령	40~44세	12	2.56		B	44	3.08		
	45~49세	70	3.05	2.62**	A	205	3.17	1.34	
	50~54세	93	3.05		A	126	3.21		
	55~59세	43	3.02		A	24	3.30		
자 각 연 령	39세 이하	17	2.90			90	3.07		B
	40~49세	125	2.96	.64		267	3.16	4.12**	B
	50세 이상	76	3.04			85	3.32		A
막 내 자 녀 위 치	중학교 재학	66	2.99			122	3.14		
	고등학교 재학	73	2.97	.19		170	3.12	1.71	
	대학교 재학	61	3.03			124	3.25		
학 력	중학교 졸업이하	11	3.12		A	86	3.28		A
	고등학교 졸업	58	3.12	2.79*	A	187	3.24	4.67**	BA
	전문대·대학중퇴	19	3.09		A	37	3.00		C
	대학교 졸업이상	130	2.89		B	132	3.06		BC
가 계 소 득	I. 60만원미만	59	3.13		BA	103	3.36		A
	II. 61~80만원	33	3.19	3.76**	A	94	3.29	7.28***	A
	III. 81~100만원	64	2.83		C	128	3.09		B
	IV. 101~150만원	20	2.89		BC	62	3.95		B
	V. 150만원이상	42	2.89		BC	55	3.06		B
남 편 의 직 업	은퇴·기타	20	2.91			40	3.37		BA
	단순노무·숙련노동	14	3.27	1.97		16	3.50	4.51***	A
	자영상공	48	3.08			86	3.19		CD
	사무직	44	3.04			101	3.27		CBA
	전문직	77	2.86			173	3.05		CD
	자본가	13	2.95			21	2.96		D
아 들 유 무	아들없음	29	2.93			57	3.11		
	아들1명	117	2.95	.79		223	3.19	.37	
	아들2명	72	3.05			162	3.17		
가 족 형 태	핵가족	180	2.98	.06		367	3.18	-.80	
	직계가족	38	2.98			75	3.12		
부 인 의 직 업 유 무	무	181	2.97	.63		285	3.26	-4.47***	
	유	37	3.04			157	3.01		
부 인 의 직 업상 지 위	비취업	181	2.07			285	3.26		A
	비전문직	30	3.07	.41		85	3.09	11.85***	B
	전문직	7	2.91			72	2.91		C

미친다는 선행연구와(Cox 1980 ; Lieverman 1980 ; Giele 1982) 일치하나, 학력이 높은 중년기 여성은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자녀독립기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며(Thompson 1980), 자아정체감에 대한 갈등과 이에 따르는 위기감을 경험한다는 견해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개인 또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사회 경제적 자원이 심리적 보상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때, 생활 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따라 야기되리라 보는 중류 계층의 중년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남편의 직업종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중년기 남성에게 있어 직업지위가 낮은 사람이 직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권태감이 높으며(Lowenthal et al 1976), 비교적 성공적인 전문직 종사자 자본가등 엘리트 집단의 남성은, 위기감 초초감이 뚜렷하게 낮았다(Vaillant 1977)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으나, 객관적 성취, 일 자체가 더 이상 중년기 남성의 정서적 구심점은 아닌 듯하다는 Levinson(1987)의 견해와는 일치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상공, 전문직, 자본가 집단의 위기감이 은퇴·기타, 단순노무·숙련노동집단의 위기감보다 의미있게 낮았으며, 또한 자본가 집단의 위기감이, 사무직 집단의 위기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남편의 직업이 남성자신의 위기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성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난 것은, 중년기 여성의 제한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등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수준이 여전히 의존상태에 머물러 있어 대리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아들 유무와 가족형태는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아들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던 한국가족에서의 전통적 의식구조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중류층에

편포된 경향을 감안할 때, 특히 중류계층에 있어 아들 선호사상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부인의 직업유무는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나,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 부인의 위기감이 비취업부인의 위기감보다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중년기 위기감을 제거할 수 있으며, 비취업부인의 심리적 병리현상이 높다는 Cox(1980), Thompson(198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부인의 직업유무 뿐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취업부인을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비취업부인을 포함하여, 세 집단간의 중년기 위기감 수준의 차이를 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Duncan Test결과 비취업부인의 위기감 수준이 뚜렷하게 높고, 다음이 비전문직 부인, 전문직 부인의 순으로 위기감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직업 유무 뿐만 아니라, 취업부인의 경우 그의 직업상 지위도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드러내 준다.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른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의 차이가, 부인의 직업유무가 주된 효과로 작용한 결과에 의한 것인지, 또는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인의 직업 유무와 상관인 높은 학력, 남편의 직업<sup>3)</sup> 각각 통제된 후에  $2 \times 4$ ,  $2 \times 6$  factorial design의 이원변량 분석을 통하여, 부인의 직업유무의 주된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을 통제한 경우에는, 주된 효과가 소멸된 반면, 상호작용 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집단에서만 취업부인의 중년기 위기감이 비취업부인의 중년기 위기감보다  $p < .001$  수준에서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6).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에 있어, 그들의 목표나 성취욕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위

주 3 : 부인의 직업유무는 학력( $r = .15^{**}$ ), 남편의 직업( $r = .15^{**}$ )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다.

표 5. 학력 및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른 여성의 중년기위기감

변 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수준
학력	2.3681	3	0.7894	2.44	0.064
부인의 직업유무	1.4748	1	1.4748	4.56*	0.033
학력×부인의 직업유무	3.0696	3	1.0232	3.16*	0.024
잔차	140.3554	434	0.3234		

표 6. 학력에 따른 부인의 직업유무별 여성의 중년기위기감

집 단	중졸이하	고 졸	전 문 대	대 졸
취 업 부 인	3.13	3.11	3.14	2.86
비 취 업 부 인	3.35	3.28	2.92	3.28
t	1.50	1.76	1.11	4.40***

표 7. 남편의 직업 및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른 여성의 중년기위기감

변 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수준
남편의 직업	7.0855	5	1.4171	4.48***	0.0005
부인의 직업유무	2.6218	1	2.6218	8.29**	0.004
남편의 직업×부인의 직업유무	3.5448	5	0.7090	2.24*	0.049
잔차	134.3326	426	0.3161		

표 8. 남편의 직업에 따른 부인의 직업유무별 여성의 중년기위기감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유무	은퇴·기타	단 순· 숙련노동	자영상공	사무직	전문직	자본가
비 취 업 부 인	3.43	3.33	3.24	3.40	3.13	3.19
취 업 부 인	3.24	3.67	3.08	2.94	2.93	2.51
t	1.03	1.94	1.17	3.98***	2.30*	2.48*

기감이 높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여성 고등 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보다 많은 여성이 가정과 직업생활을 병행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 취업의 기회가 보다 확대 되지 않는 한, 미래 중년기 동시집단의 위기감은 더욱 증가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남편의 직업을 통제된 경우에는, 부인의 직업유무별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여전히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7), 또한 남편의 직업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p < .05$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p < .001$ ), 전문직, 자본가인 경우( $p < .05$ ) 각각 취업부인의 중년기 위기감이 의미있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표 8).

이와 같이 부인의 직업유무는 성별, 학력, 남편의 직업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에 각기 달리 영향을 미침으로, 직업유무 자체 보다는 위와 같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심리적 특성변인과 중년기 위기감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심리적 특성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는(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년기 적응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변인으로 택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추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등간척도로 위기감과의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표 9와 표 10에 나타난 바와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은, 중년기 위기감과 매우 뚜렷하게 의미있는( $p < .001$ ) 負의상관을 보여,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또한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중년기 위기감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여성의 경우 부양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중년기 위기감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일에 있어 목표에 도달한 중년기 개인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넘치며, 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남의 지도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젊은이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이 성공적인 중년기를 맞이하는 반면, 젊은 시절부터 설정해 왔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절망감에 빠지며, 따라서 높은 위기감을 경험한다(Tamir 1982)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노화현상이나 신체적 매력의 상실이 남녀 모두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드러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녀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며(Datan 1982), 노화증세에 대한 자각이 많을수록 위기감이 높다는 선행연구(김명자 1986)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노화증세에 따른 신체적 매력의 상실감, 젊음의 상실감등은 중년기 남녀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제거하고, Peck(195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체력, 신체적 강점보다는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지혜를 조화시켜 정신력을 강조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극소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인관계에 대한 정체감이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드러난 것은,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신뢰할 만한 사람(confidant)이 적어도 1인이상 있을때 중년기 적응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기존연구

(Lowenthal & Haven 1968 ; Brown & Harris 1978)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므로, 대인관계에 대한 질적인 면과 함께 접촉빈도, 방문빈도 등 양적인 면도 함께 고려하고, 친구관계와 친족관계를 구분하여 연구해 볼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Cox(1980)에 의하면 극히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지닌, 저소득, 저학력의 중년여성만이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한다.

중년기 여성은 남편의 건강 실적 사망등에 대한 염려가 많은 시기라는 선행연구(Troll 1982)에 근거하여, 부양능력에 자신감이 있는 여성이 위기감을 덜 경험하리라 추측되었으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은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 3) 가족관계와 중년기 위기감

중년기 위기감은 가족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는 (가설 2-3)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관계와 남녀의 중년기 위기감과의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표 9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과 의미있는 負의 상관을 보여, 가족관계가 원만한 사람일수록 위기감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관계 모두가 매우 뚜렷하게( $p < .001$ )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있어 가족생활은 자신의 사회적 의미와 존재의미를 제공해 주는 총체적인 기능을 한다 하겠다.

또한 중년기는 노부모와 자녀의 중간 세대로서, 자녀의 성장으로 결혼, 가족생활에 희의를 느끼며, 노부모와의 역할 권력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죄책감과 초조감이 유발된다고 하나, 중년기 남성은 사회생활 직업보다는, 가족생활을 더욱 중요시하기 시작하며,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정감은, 직업에서의 성공보다는 행복한 가족생활, 남편의 역할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 Tamir(1982)의 견

표 9.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과 주요변인들의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n=218)

주요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	1.00											
2. 연령	.03	1.00										
3. 학력	-.07*	.00	1.00									
4. 가계소득	-.09	.17*	.15*	1.00								
5.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42***	-.04	-.00	.04	1.00							
6.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36***	-.04	-.06	-.10	.19***	1.00						
7.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02	.05	-.06	.02	.29***	-.10	1.00					
8. 부부관계	-.22**	.02	.15*	.07	.39***	.21***	.24***	1.00				
9. 자녀관계	-.36***	-.06	.10	.06	.42***	.26***	.20***	.38***	1.00			
10. 노부모관계	-.14*	-.12	.06	-.00	.26***	-.07	.28***	.23***	.29***	1.00		
11. 건강	-.29**	-.16	-.05	-.06	.27***	.28***	-.04	.03	.36***	.15*	1.00	
12. 종교참여도	-.04	.10	.19**	.07	.00	-.03	.01	.12	-.02	.08	-.03	1.00
평균	2.98	50.90	4.34	119.70	3.62	3.20	3.44	3.49	3.64	3.45	3.50	2.47
표준편차	.57	4.18	1.15	81.40	.54	.38	.48	.59	.56	.73	.68	.96

\*p<.05 \*\*p<.01 \*\*\*p<.001

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설 2-3)은 긍정되었다.

4)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과 중년기 위기감

(가설 2-4)와 관련하여 건강과 남녀의 중년기 위기감과 상관관계를 산출한 것이 표 9와 표 10 인데, 남녀 모두에 있어 뚜렷하게 높은 負의 상관을 보여(p<.001), 건강상태가 좋은 남녀일수록 위기감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적응에, 신체적 건강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드러내 준다.

결국 중년기 위기감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증세, 건강상실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년기 개인은 같은 세대인 친구의 사망을 통하여 자신의 연령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함께 사망 노화 질병등이 자신의 일로 감지되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 Kerckhoff(1976)의 견해와 일치된다. 역시 (가설 2-4)를 검증하기 위해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 변인으로 폐경경험 유무, 폐경경과 햇수를 선정하여,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과의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1에 나타나 있는데, 이들 변인은 모두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을 의미있게 설명해 주는 변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러 선행연구 결과는 폐경이나 폐경경과 햇수가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폐경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50세 전후하여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폐경은, 신체적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수반한다고 하는 전통적 견해와 상반되나, 폐경기에 처한 부인들의 우울증 내지 심리적 신체적 증세는, 월경의 중단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전단계의 발달과업과 관련이 있으며, 전단계 과업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느끼는 여성은, 폐경기에 이르러 부모역할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넓은 사회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는 Lennon(1980)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수술로 인하여 월경이 중단된 집단의 중

표 10.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과 주요변인들의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n=442)

주요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	1.00																			
2.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44***	1.00																		
3. 부양능력에 대한 자신감	-.06	.41***	1.00																	
4.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37***	.23***	.08	1.00																
5.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04	.29***	.14**	-.02	1.00															
6. 부부관계	-.40***	.31***	.06	.16***	.25***	1.00														
7. 자녀관계	-.31***	.42***	.14**	.17***	.27***	.35***	1.00													
8. 노부모관계	-.23***	.32***	.12**	.11*	.28***	.34***	.47***	1.00												
9. 건강	-.33***	.27***	.13**	.23***	.02	.19***	.13**	.08	1.00											
10. 종교참여도	-.13*	.16***	.01	.06	.08	.12**	.08	.10*	.04	1.00										
11. 자각연령	.14**	-.18***	.16***	-.01	-.09	-.15**	-.08	-.10*	.09	.04	1.00									
12. 기독교 <sup>a)</sup>	-.12*	.09	.02	.06	.05	.08	.02	.04	10*	.46***	-.03	1.00								
13. 친구교 <sup>a)</sup>	-.07	.01	-.01	.05	-.02	-.02	-.03	-.06	.04	.17***	-.05	-.33***	1.00							
14. 불교 <sup>a)</sup>	.19***	-.03	.03	-.10*	.04	-.03	.02	.05	.07	-.10*	.03	-.42***	-.28***	1.00						
15. 학력	-.17***	.14**	.19***	.13**	.06	.21***	.06	.09	.18***	.10*	-.13***	.13**	.10*	-.19***	1.00					
16. 기계소득	-.12*	.08	.16***	-.00	.04	.10*	.09	.02	.06	-.01	-.04	.01	-.01	-.02	.22***	1.00				
17. 남편의 직업	-.19***	.08	.08	.09	.13**	.22***	.05	.07	.08	.04	-.16***	.02	.08	-.08	.33***	.22***	1.00			
18. 연령	-.10*	.02	-.08	.03	.02	-.04	.01	-.00	.01	.03	.60***	-.05	-.08	-.07	-.04	.02	-.16***	1.00		
19. 전문직 <sup>a)</sup>	-.19***	.26***	.28***	.14**	.02	.17*	-.02	.06	.15**	-.00	-.09	.12*	.11*	-.21***	.43***	.14**	.19***	.10*	1.00	
평균	3.17	3.46	3.39	2.85	3.52	3.32	3.62	3.38	3.09	3.09	39.91	.33	.18	.26	3.47	107.30	5.79	48.00		1.6
표준편차	.59	.65	.90	.46	.49	.70	.57	.74	.77	1.00	6.11	.47	.39	.44	1.29	76.90	1.64	3.88		.37

\*p<.05 \*\*p<.01 \*\*\*p<.001  
<sup>a)</sup> 가변수임.

년기 위기감도 의미있게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기대했던 시기에 폐경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하는 사건중심 모델을 주장하는 사회과학자들의 견해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폐경경과 햇수도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에 여성이 느끼리라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등도,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듯하다. 이것은 폐경후 1~2년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가장 많으며 적응력도 낮으나, 그 이후 점차로 폐경기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Lennon 1980)는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폐경이 중년기 부인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폐경 자체가 중년기 부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상 분석한 바와 같이 폐경경험 유무, 폐경경과 햇수는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긴장은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남으로써, 남녀의 중년기 위기감은 생물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는 (가설 2-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 5) 종교와 중년기 위기감

(가설 2-5)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년기 위기감과 종교유무, 종교종류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1에 나타나 있으며 종교참여도와외의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는 표 9와 표 10에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종교유무, 종교종류, 종교참여도등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교유무가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은 아니었으나, 종교가 있는 경우, 어느 종교를 믿는가에 따라 매우 뚜렷하게 ( $p < .001$ ) 영향을 받으며, Duncan Test 결과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여성의 위기감이, 불교를 믿는 여성의 위기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참여도와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과의 상관관계는 의미있게 높은 ( $p < .01$ ) 負的 상관을 보여, 종교참여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위기감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종교생활의 중요성과 함께 종교활동을 통하여 중년기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시간의 유한성이나 죽음에 대한 염려등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중년기

표 11. 신체적 특성, 종교변인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

신체적특성 종교 변인	집 단	남 자(n=218)			여 자(n=442)			
		빈도	평균점수	유의도(F, t검증) Duncan's	빈도	평균점수	유의도(F, t검증) Duncan's	
폐 경 경 험	월경계속중				285	3.15		
	수술로중단				36	3.25	.62	
	자연히중단				119	3.20		
폐경중단햇수	2년이하				62	3.20		
	3~5년				53	3.28	.62	
	6년이상				37	3.14		
종 교 유 무	있음	126	2.96	.82	348	3.17	-.11	
	없음	92	3.02		94	3.17		
종 교 종 류 <sup>a)</sup>	기독교	52	2.98		147	3.08		B
	천주교	29	2.88	.29	81	3.08	9.29***	B
	불교	43	2.98		117	3.36		A

<sup>a)</sup> 종교가 있는 집단과 빈도수가 같지 않은 것은 기타 종교집단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추측하였으나, 중년기 남녀 모두에 있어 종교유무가 의미있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나타난 결과이기는 하나, 우리의 전래 종교인 불교보다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여성의 위기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의 경우 종교활동 및 참여가 가족단위로 빈번히 활발하게 유지되므로, 이러한 가족단위의 종교활동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갈등이 보다 쉽게 극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원간의 애정이나 응집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종교생활이 중요함을 드러내주며, 또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중년기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기 위기감과 종교를 관련시킨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중년기 남성은 자신의 정체감과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해줄 外的 자원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종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잠재된 능력이 종교활동을 통하여 발휘될 수 있으며, 또한 종교활동이 자신의 사회적 의미와 外的 의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함을 감안할때, 중년기 여성의 종교생활은 중년기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 분석한 바와 같이 종교유무, 종교종류, 종교참여도는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에는 의미있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종교종류와 종교참여도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있어,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종교에 따라 영향받으리라는 (가설 2-5)는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 3. 관련변인들의 설명력

중년기 위기감 수준을 설명해 주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내의 모든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5% 수준 이상에서 유의적인 변인들을 선정하였다<sup>4)</sup>.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이며( $\beta = -0.31$ ), 다음이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beta = -0.25$ ), 자녀관계( $\beta = -0.16$ ), 학력( $\beta = -0.14$ ), 막내자녀 대학교재학 가변수( $\beta = 0.13$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과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은 중년기 위기감을 덜 느끼는 것이 밝혀졌으며, 막내자녀가 대학에 재학할수록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변인에 의하여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32%정도가 설명된다. 결국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법도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이

표 12.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n=218)

종속 변인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			
단계	독립 변인	B	$\beta$	Partial R <sup>2</sup>	R <sup>2</sup>
1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32	-.31***	.18***	.18
2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37	-.25***	.08***	.26
3	자녀관계	-.16	-.16*	.03**	.29
4	막내자녀 대학교 재학 가변수	.38	.13*	.02*	.31
5	학력	-.07	-.14*	.02*	.32
회귀상수		6.48			
R <sup>2</sup>		.32			

주 4: 명목 변인은 가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음.

표 13.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n=442)

종속 변인 :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					
단계	독립 변인	B	$\beta$	Partial R <sup>2</sup>	R <sup>2</sup>
1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31	-.35***	.20***	.20
2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27	-.21***	.08***	.28
3	부부관계	-.16	-.20***	.06***	.34
4	건강	-.11	-.14***	.02***	.36
5	불교 가변수	.16	.12**	.02***	.38
6	부양능력에 대한 자아정체감	.10	.16***	.02***	.40
7	연령	.02	.10**	.02**	.41
8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12	.10*	.01*	.42
9	자녀관계	-.10	-.10*	.01*	.43
회귀상수 R <sup>2</sup>		4.92			
		.43			

표 13에 나타나 있는데, 남성보다 다양한 변인에 의하여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 $\beta = -0.35$ )으로 드러났으며, 다음이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 $\beta = -0.21$ ), 부부관계( $\beta = -0.20$ ), 부양능력에 대한 자신감( $\beta = 0.16$ ), 건강( $\beta = -0.14$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불교 가변수( $\beta = 0.12$ ), 연령( $\beta = 0.10$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 $\beta = 0.10$ ), 자녀관계( $\beta = -0.10$ )도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일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만족할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낮아지며, 부양능력, 대인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불교를 믿을수록 위기감 수준이 높아짐이 밝혀졌으며 이들 9개 변인에 의하여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43%정도가 설명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년기 위기감의 일반적 수준, 중년기 위기감과의 관련변인을 규명하여, 변동에 처한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생활에 올바른 방

향을 제시하고, 중년기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특성변인, 가족관계, 신체적 생물학적 변인, 종교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중년기 위기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한 뒤 제반 측정도구를 작성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9세 남자 218명, 여자 442명이며, 이들은 모두 배우자가 있으며 사춘기 이상의 막내자녀를 둔 사람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년기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문화배경이 다른 미국에서 행하여진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 제반 척도의 표준화문제, 수량적 접근으로 개인의 자각을 중심한 심리적 측면을 측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임의적 표집방법으로 증상류층에 치중하여 표집범위가 좁았다는 점, 전문직부인의 직업이 거의 교직에 한정되었다는 점등의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는 중년기에 어느 정도 위기감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는 중년기 위기감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탐색을 통하여,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남성에 비하여 보다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연령 학력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일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또한 가족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위기감수준은 낮았다.

여성에 있어서는 자각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취업부인일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인일수록 위기감을 덜 경험한다. 그리고 일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종교참여도가 높을수록,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일수록 위기감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외모에 대한 자아정체감으로 드러났으며,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제변인들의 설명력은 32%,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제변인들의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 결과들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전 인생주기의 한 부분인 중년기는, 과거와 미래의 교량으로 그 자체의 특성과 의미 내용을 지니므로, 家政科교육은 전 생애를 통한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중년기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도와 자아와 환경을 보다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그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중년기 역시 인간발달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병리적이거나 문제의 단계가 아닌, 중년기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지닌 특성이 있다는 긍정적 관점에 근거하여, 중년기에 처한 개인의 위기감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중년기 역할에 대한 규범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것은 Burr(1973)가 예측된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결혼 가족생활교육은 인생주기의 초기단계 뿐 아니라 중노년기까지를 포함시켜, 각단계에 처한 개인의 새로운 역할과 변동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체적

(holistic)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 중년기 제반 역할 변화와 전환과정에서 위기감을 유발하기도 하나, 이러한 중년기 위기감을 자신에 대한 풍부한 자각과 새로운 능력 자원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교육 프로그램, 상담활동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년기에 당면한 새로운 역할과 변화, 더 나아가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돕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중년기 정의의 명료화 작업, 중년기 전환점이 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지표개발등을 위하여는, 중년기에 초점을 맞춘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을 규명하여, 개인의 중년기 적응을 돕는데 유용한 시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일반화하기 위하여는, 표준화된 위기감척도 개발, 전인생주기를 통한 연령별 비교분석, 중년기 개인이 처한 세대의 위치, 역할변동이나 개인의 생활사건 前과 後의 비교 연구를 포함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앞으로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계층별, 거주지역별 비교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친족관계 친구관계등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망과 관련시킨 연구도 요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심리적 변인외에 대처양식, 内外통제성과의 관련성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가족계획 연구원 : 인구 및 가족계획통계 자료집. 제 1 권, 1978
- 2) 경제기획원 : 한국 통계 연감. 제 29 호, 1982
- 3) 경제기획원 :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제 1 권, 1987
- 4) 김명자 : 중년기 부인의 심리적 위기감과의 관련 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27 집, pp415-36, 1986
- 5) 김애순 · 윤 진 : 성인기의 연령증가와 상황평가에 따른 대처행동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

- 6 집, p1-9, 1987
- 6) 서봉연 :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1975
  - 7) Barak B : *Cognitive Age :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Age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5 : No. 2, pp109-28, 1987
  - 8) Borland DC : *Research on Middle Age :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18 : No. 4, pp379-86, 1978
  - 9) Brown GW & T Harris :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NY : Press. 1978*
  - 10) Burr WR :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Y : John Willey and sons, 1973*
  - 11) Clausen, JA : *Glimpses into the Social World of Middle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 : No.2, pp99-106, 1976*
  - 12) Colarusso CA & RA Nemiroff : *Adult Development. NY : Plenum Press 1983*
  - 13) Cox CB : *Illness Behavior in Mid-lif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1980*
  - 14) Datan N : *Midas & Other Mid-Life Crisis Readings i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ed, KW Schaie and J Geiwitz, Boston : Little Brown & Company, pp286-95, 1982*
  - 15) Farrel MP & SD Rosenberg : *Men at Midlife. Boston : Simon and Schuster 1981*
  - 16) Giele JZ : *Women in Adulthood : Unanswered Questions. Women In the Middle Years, ed., JZ Giele NY : John Wiley & Sons, pp1-35, 1982*
  - 17) Gould RL : *The Phases of Adult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9 : No.5, pp521-31, 1972
  - 18) Gould RL : *Transformations :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Y : Simon and Schuster.*
  - 19) Hays MP & Stinnett :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 Vol 9, pp669-74, 1971
  - 20) Jacques E :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 pp502-14, 1965
  - 21) Kerckhoff RK : *Marriage and Middle Age. The Family Coordinator* 25 : pp5-11, 1976
  - 22) Koenig HG, JN Kvale & C Ferrel : *Religion and Well-Being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28 : No. 1, pp18-28, 1988
  - 23) Lennon MC : *Psychological Reaction to Menopause : A Soci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olumbia University. 1980*
  - 24) Levinson DJ, CN Darrow EB Klein, MH Levinson and B Mckee :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 Knopf, 1978*
  - 25) Lieberman NA : *Soci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Adaptation. Being and Becoming Old, ed., J Hendricks NY : Baywood Publishing Com Inc pp 33-43, 1980*
  - 26) Linn, MW, & BS Linn : *Self-Evaluation of Life Function Scale. Journal of Gerontology* 39 : No. 5, pp603-12, 1984
  - 27) Livson FB : *Patterns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Aged Women :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 : pp107-15, 1976
  - 28) Lowenthal MF, & C Haven : *Interaction and Adaptation :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Middle Age and Aging, ed., BL Neugarte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29) Neugarten BL : *The Awareness of Middle Age. Middle Age and Aging, ed., BL Neugarte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93-98, 1975*
  - 30) Neugarten BL & GL Hagestad : *Age and the Life Course.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Y. : D. Van Nostraned Company, pp33-55, 1976*
  - 31) Neugarten BL : *Time, Age, and the Life Cycl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 No. 6, pp887-94, 1979
  - 32) Oppenheimer V : *The Life Cycle Squeeze : The Interaction of Men's Occupation and Family Life Cycles. Demography* 11 : pp227-45, 1974
  - 33) Radloff LS :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 No. 3, pp

- 385-401, 1977
- 34) Rubin LB : *Women of a Certain Age*. N.Y. : Harper and Row 1979
- 35) Rubin LB : *The Empty Nest : Beginning or ending. Competence and Coping During Adulthood*, ed., LA Bond & JC Rosen, London :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pp309-31, 1980
- 36) Sheehy, G : *Passage :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 Dutton 1976
- 37) Snyder , DK :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anual*. L.A. : WPS 1981
- 38) Tamir, LM : *Men at Middle Ag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64 : pp47-56, 1982
- 39) Thompson, MJ : *Identity Attainment in Mid-Life Females : An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80
- 40) Troll, LE : *Continuations : Adult Development and Aging*. Monterey : Books/Cole 1982
- 41) Vaillant, GE : *Adaptation to Life*. Boston : Little Brown 1977
- 42) Weller, EK : *A Profile of Male Mid-Life Concer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83
- 43) Williams, AK : *Physical Illness and Depression : Changes Over Time in Middle Age and Elderly Per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ortland State University 1985